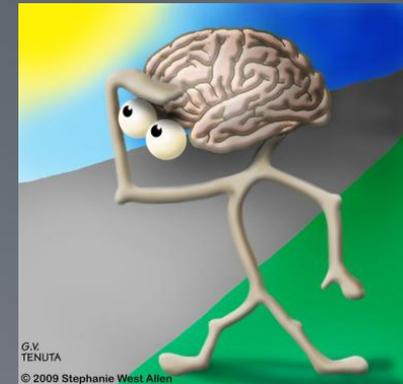

주간 뇌연구 동향

2014-04-18



한국뇌연구원

연구본부

01 국내외 뇌 과학 연구 학술 동향

1. 배가 고프면 공격적인 부부



PNAS. 2014 doi/10.1073/pnas.1400619111

- Ohio State University의 심리학자 Brad J. Bushmana 박사는 커플사이에 '포도당 수치와 공격성'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실험을 진행.
- 켄터키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동료들과 함께 107쌍의 부부를 모집하여 부부에게 인형과 함께 핀을 주고,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나쁠 때 인형을 핀으로 찌르게 한 결과, 배가 고파 혈당이 낮을수록 분노의 강도가 높아져 인형에 꽂힌 핀도 많았음.
-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뇌가 분노와 공격성을 자제하는 데 충분한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.



- 사진출처: 이데일리

01 국내외 뇌 과학 연구 학술 동향

2. 인간의 두뇌 능력, '이 때' 부터 떨어진다

OPEN ACCESS Freely available online

PLOS ONE

Over the Hill at 24: Persistent Age-Related Cognitive-Motor Decline in Reaction Times in an Ecologically Valid Video Game Task Begins in Early Adulthood

Joseph J. Thompson^{1*}, Mark R. Blair¹, Andrew J. Henrey²



PLOS ONE 2014, doi:10.1371/journal.pone.0094215

- 스타크래프트 게임

- 캐나다의 Simon Fraser University Joseph J. Thompson과 연구진은 16세부터 44세 '스타크래프트2'를 하는 사람 3305명의 플레이를 분석한 결과 24세부터 두뇌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힘.
- 대략 24세 이후로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인지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으며, 이러한 인지수행능력의 저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 이용에서도 나타남.
-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이점도 있음. 나이를 더 먹은 선수들은 느리더라도 젊은 선수들보다 단순한 전략을 쓰고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만회하는 것으로 보임.

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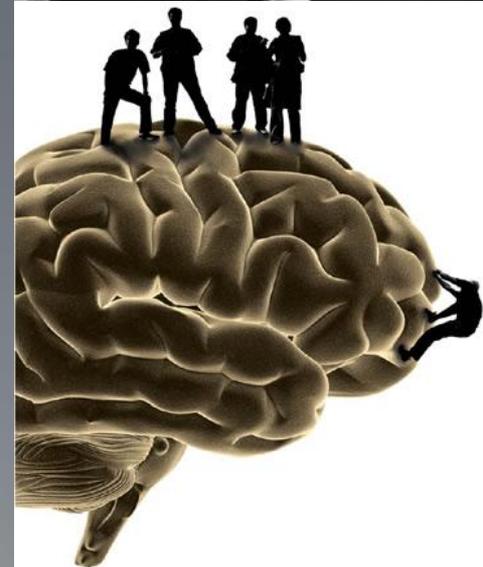
1. 내 머리에 안테나...사이보그된 예술가

- 닐 하비슨이라는 올해 31세인 이 예술가는 흑백색맹(achromatopsia) 이어서 컬러를 인식하지 못했으나, 이를 해결하기 위해 '아이보그 (eyeborg)'란 이름의 안테나를 자신의 머리 뒤편에 심었음
- 이 안테나는 안테나를 통해 360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해 내고 이를 머리뼈에 소리로 전달해 준다. 자외선과 적외선까지도 구분함.
- 출처 : ZD net Korea



2. 과학기금은 메말라 사상 최악

- 과학기술 육성으로 창조경제를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창조경제의 젖줄이 돼야 할 관련 기금은 거꾸로 메말라 감
- 마땅한 추가 수입원 없이 기금이 운용되면서 다른 기금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오히려 1990년대만도 못한 사상 최악의 상황에 허덕이는 형국.
- 출처 : 서울경제



감사합니다

